

황해도 대동굿·배연신굿의 무의식조사

(黃海道 대동굿·배연신굿의 巫儀式調査)

李 輔 亨

<文化財 專門委員>

目 次

I. 序

II. 대동굿

III. 배연신굿

I. 서(序)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웅진(甯津) 등 서남지역에는 예로부터 어업이 성하였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대동굿 배연신굿 등 풍어(豐漁)를 비는 의식(儀式)이 많이 행하여졌다. 특히 해주(海州) 결성표, 웅진군(甯津郡) 봉구면 가맛개, 육개머리, 육섬, 소수업섬, 대수업섬, 육섬, 웅진군 흥미면 의아도, 웅진군 웅남면 용호도와 같은 어촌(漁村)에서는 대동굿과 배연신굿이 성행하였다 한다.

6·25 때 웅진군 흥미면 육개머리 육섬의 어민(漁民)들은 경기도(京畿道) 부천군 덕정면 해안으로 피난와서 어민으로 정착하였고 웅진군 소수업섬 대수업 섬사람들은 충남(忠南) 광천(廣川) 구룡구지로 피난와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피난와 살면소도 배연신굿을 하였는데 황해도(黃海道)에서 「경관만신」이라 하여 큰 만신으로 꼽히던 김금화(金錦花) (여(女) 1931년생(年生))가 6·25때 피난와서 인천(仁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금화(金錦花)가 이 풍어제(豐漁祭)를 주로 맡아 행하였다.

황해도(黃海道) 어민(漁民)들은 6·25 때 피난와서 인천(仁川), 덕적도, 군산(群山), 목포(木浦), 광천(廣川) 수룡구지 등 여러 고장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선주(船主)가 개인적으로 벌리는 풍어제(豐漁祭)인 배연신굿은 자주 행하였으나 어촌지역주민(漁村地域住民)이 모두 참가하는 풍어제(豐漁祭)인 대동굿은 행하지 못하였다. 김금화(金錦花)의 주동으로 황해도(黃海道) 출신 어민(漁民)들을 규합하여 1983년부터 매년(每年) 인천(仁川)에서 황해도(黃海道) 대동굿을 하게 되었는데 1983년에는 인천(仁川)화수부두에서 행하였고 1984년에는 인천(仁川) 연안부두에서 행하였고¹⁾ 1985년에는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소래포(蘇萊浦) 부두

1)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三冊 農樂·豐漁祭·民謠篇(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2) pp. 18 4~200.

에서 행하였다. 김금화(金錦花)가 보유(保有)한 대동굿 배연신굿 등 황해도(黃海道) 풍어제(豐漁祭)는 1982년(年)에 조사되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십삼책(第十三冊) 농악(農樂)·풍어제(豐漁祭)·민요편(民謠篇)에 보고(報告)된 바 있다. 이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에는 의식(儀式)의 민속학적(民俗學的) 사회적(社會的) 기능(機能)에 중점을 두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음악(音樂)·무용(舞踊)·연희적(演戲的)인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의식에서 음악(音樂)과 무용(舞踊)과 연희(演戲)가 어떻게 연행(演行)되는가하는 의식(儀式)의 공연적인 구성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황해도(黃海道) 무의식(巫儀式)의 음악(音樂)·무용(舞踊)에 관한 조사(調查)는 1983년(年)에 한국민속종합보고서(韓國民俗綜合報告書) 제십사책(第十四冊) 무의식편(巫儀式篇)에서 보고되었으나 이 보고서에는 황해도 무의식에서 연행되는 음악(音樂)·무용(舞踊) 그리고 황해도(黃海道) 철몰이굿 의식(儀式)의 연행절차에 관하여 보고(報告)되었고 황해도(黃海道) 대동굿 배연굿과 같은 풍어제(豐漁祭)의 음악(音樂)·무용(舞踊)·연희(演戲)가 어떤 의식절차(儀式節次)와 같이 연행되는가 하는 의식구성(儀式構成)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²⁾

황해도(黃海道) 풍어제(豐漁祭)는 1984년(年)에 중요무형문화재제82호(重要無形文化財第82號) 풍어제(豐漁祭)로 지정되었고 김금화(金錦花)가 「경관만신」 즉 주무(主巫)로 무의식(巫儀式) 기예능(技藝能) 보유자(保有者)로 인정되었고 최음전(崔音全)(여(女) 1915 년생(年生))이 장고반주(長鼓伴奏)와 산반이의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로 인정되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는 1985년(年) 4월(月) 27일(日)부터 28일(日)까지 2일간(日刊)에 걸쳐서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소래포(蘇萊浦)에서 행하여진 황해도(黃海道) 풍어제(豐漁祭)를 조사(調查)하였다. 이 풍어제(豐漁祭) 조사(調查)목적은 황해도(黃海道) 풍어제(豐漁祭)의 음악(音樂)·무용(舞踊)을 중심으로 하는 무의식(巫儀式)구성(構成)에 관한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풍어제(豐漁祭)는 황해도(黃海道) 본바닥에서 하던대로 연행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황해도(黃海道) 본바닥에서 대동굿은 3~4 일간(日間)에 걸쳐서 행하여졌고 배연신굿은 한 선주(船主)의 것을 하루 종일 하던 것인데 이번 풍어제(豐漁祭)는 대동굿과 배연신굿을 2일동안에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仁川) 풍어제(豐漁祭)의 현지조사(現地調查)란 것을 토대로 하되 생략된 부분은 뒤에 서울 김금화(金錦花) 자택(自宅)을 방문하여 대담으로 보충조사하였다.

김금화(金錦花)는 황해도(黃海道) 延白郡 선산면 박훈리에서 申末年(1931年) 陰 8月 18日에 출생하였다. 호적(戶籍)은 1931年 8月 18日생(日生)으로 되어 있다. 7세때 웅진군(甕津郡) 홍미면 쾌암리로 이사하였고 12세때 무병을 앓았고 17세 때 내림굿을 하고 외할머니 김천일 밑에서 무학습(巫學習)을 하였고 이어서 유만신에게 배웠고 18세 때에는 「관(官)무당」 권(權)만신에게 학습하고 나서 실제 무업(巫業)에 들어가 이 지역(地域) 풍어제의식(豐漁祭 儀式)에 나가 굿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6·25 후에 김금화(金錦花)는 순회도 섬에 피란해 있다가 대청도로 옮겨 살았고 이때에 황해도 어민(黃海道 漁民)들이 피란 와서 어업(漁業)에 종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던 풍어제(豐漁祭) 의식에 참가하였다. 이때 나이 19세 때라 한다.

21세 때에는 인천(仁川)에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 무렵에 덕적도, 군산(群山), 목포(木浦), 광천(廣川) 수룽구지 등으로 다니며 황해도(黃海道) 출신 어민(漁民)들의 배연신굿을 했다 한다.

2)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四冊 無意識篇(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3 pp.284~313

35세 이후에는 서울에 이사와 살았으며 1970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特別市) 성북구 석관동(城北區 石串洞)에 살았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동안 민속촌(民俗村)공간(空間) 사랑 등 여러 곳에 공개공연(公開公演)을 한 바 있고 근래에는 미국(美國)에 건너가서 공개 공연을 한 바 있다. 1983년 이래 매년(每年) 인천(仁川)에서 대동굿과 배연신굿을 하고 있고 1984년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第) 82호(號) 풍어제(豐漁祭) 보유자(保有者)로 인정되었다.

II. 대동굿

대동굿이라 함은 마을굿(부락제(部落祭))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또 두레굿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는 것이지만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웅진(甕津) 등 어촌(漁村) 마을굿 즉 마을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풍어제(豐漁祭)를 대동굿이라 한다.

황해도(黃海道) 어촌(漁村)의 대동굿하는 주기(周期)는 고장마다 달라서 웅진 육개머리에서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용호도에서 해마다 했다 한다. 이와 같이 황해도(黃海道) 대동굿은 일년 또는 삼년마다 한번씩 하는 고장이 많다고 한다. 6·25후에는 피난민들이 개인적으로 배연신굿만 하였고 대동굿은 못하였으나 1983년에 인천(仁川)직할시(直轄市) 화수부두에서 대동굿을 하였으며 1984년에는 연안부두에서 대동굿을 하였고 1985년에는 소래포에서 대동굿을 하였다. 황해도 에서 대동굿하는 시기(時期)는 대부분 지역이 정월 초사흘날부터 보름까지 좋은 날을 택일하여 대동굿을 하였다 한다. 만일 부득이 보름 안에 못하는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택일하여 대동굿을 하였다 한다. 20일이 지나면 뱃사람들이 모두 출어(出漁)하였기 때문에 20일 이후에는 대동굿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해마다 년말(年末)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굿을 진행할 소임(所任)을 정하기 위하여 도가택(都家宅)에 모인다고 한다. 도가택은 아이들이 없고 조용하고 한가한집을 빌리어 굿이 끝날 때 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임(所任)을 정하고 굿에 쓰일 온갖 제물(祭物)과 기물(器物)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차비를 차리는 일을 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먼저 굿을 집행할 각 소임을 정하는데 제관(祭官) 상소염(上所任),중소염(中所任) 삼소염(三所任), 오소염(五所任), 칠소염(七所任), 상산 막둥이, 하소염(下所任)을 정한다고 한다. 제관은 나이가 많고 부정한 일이 없고 복이 많고 제의(祭儀)를 아는 마땅한 사람을 골라 정한다. 상소염은 마을 유지 가운데 정하며 무당과 가깝게 굿을 집행하며 여러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재정(財政)을 맡아 통괄한다. 중소염은 상소염을 보좌하며 여러가지 일을 집행하고, 삼소염은 굿에 참여하여 마을 사람들을 이리 저리 동원시키는 일을 맡는다. 오소염과 칠소염은 돈을 추렴하는 일과 물건을 조달하는 일을 맡아 한다. 상산 막둥이는 무당의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무당 곁에서 굿의 진행을 돌보아주는 일을 맡는데 특히 굿의 식 절차에서 견힌 쌀부대를 지거나 돈 전대를 지고 다니며 또 타살굿에서 잠을 소를 타고 얼르고 모리꾼 노릇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돕는 일을 맡는다. 사소염 육소염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각 소임은 제과 상소염 중소염 삼소염 오소염 칠소염 하소염 상산막둥이 8명을 정한다고 한다.

각소임이 정하여지면 대동굿하는 날을 정하다고 한다. 굿하는 날이 정해지면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굿에 드는 비용을 추렴하는데 배부리는 선주들은 쌀 한섬정도, 배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쌀1되에서 쌀 1말정도 내었다 한다. 돈이 건히면 소를 산다든가 쌀을 산다든가 제물을 산다든가 하여 뭇을 정하되 무당에게 줄 보벌 즉 사례비는 따로 뭇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무당에게 줄 사례금은 당맞이하고 나서 세경돌 때 즉 뚝대(신대)를 보시고 집 돌이할 때 걷힌 쌀과 돈을 무다으이 사례비로 준다고 한다.

각 소임들은 한달동안 도가(都家)집에서 기거하며 제물(祭物)을 장만하고 굿에 대한 차비를 차리고 한편으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봉죽 서리화에 달 지화(紙花), 제물(祭物)에 꽃을 수파련 등 각색지화를 만들며 그 밖에 기물(器物)과 등신의 옷(굿청에서 쓰일 복색)등을 장만한다. 각 소임 외에 일을 거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서너명의 아낙네들도 참여하는데 매일 도가택에서 기거하고 「머리떡 정성드린다」고 하여 목욕 제계(沐浴齋戒)하고 「일금 소 한다」고 하여 비린것을 먹지 않고 채소로만 식사를 한다. 동네 사람들도 그때부터 밤에 불을 밝히고 근신하며 지낸다.

한편 굿을 맡아서 행할 무당을 정하는데 이 무당을 정하는 방법이 고장마다 약간씩 달랐다. 그동안 굿을 하여 덕을 본 무당이나 아니면 이름이 높은 무당을 청하는 경우가 많고 또 뱃사람들 마다 자기 단골 무당을 천거하여 그 가운데 마땅한 이를 고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육개머리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정하였다 한다. 제관이나 소임 중에 하나가 각 뱃사람들이 천거한 무당의 이름을 따로 적어서 뒷박에 담아 들고 몸을 정히 하고 「머리 떡 정성 드리고」 무당의 이름을 적어 넣은 뒷박을 들고 당으로 가서 「장군님 선택하십시오」 하고 말을 하고 종이를 하나 집어서 선택하였다 한다. 그러나 굿의 기량(技倆)이 좋지 않은 무당이 선택되기도 하였으므로 뒤에는 덕을 많이 본 무당을 정하든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신복(神服)(무복)이 많은 무당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무당이 정하여지면 그 무당이 3~4명의 조무(助巫)들을 데리고 오는데 선택된 무당을 「경관만신」이라 하고 데리고 오는 조무(助巫)들을 「새 만신」이라 한다.

굿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각 배 임자들은 뱃사람들을 불러 신복을 입히고 집마당에 장군기(將軍旗)와 뱃기를 세워놓고 제물(祭物)을 차려 놓고 뱃치기 풍장을 치고 에밀양소리를 하고 주야(晝夜)로 논다. 때에 따라서는 소년(少年)들을 무등으로 태우는데 당동고리도 타고 삼동고리도 탄다고 한다.

육개머리에서는 각 집집마다 배치기풍장을 치며 뱃사람들이 놀면서 무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무당이 오는 것이 멀이 보이면 다른 뱃사람들 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당을 업어다가 주인집 굿상 앞에 내려놓고 축원(祝願)을 받는다고 한다. 무당은 술을 붓고 고사를 모시는데 무당이 고사를 모시면 뱃사람들이 「둥둥둥……」하고 세번 북을 치고 나서 배치기 풍장을 치고 에밀양소리를 부른다. 무당이 그 뱃집주인의 뱃고사를 마치기 바쁘게 다른 집 뱃 사람들이 와서 무당을 낚어채 가는데 아무나 힘센 사람에게 끌려간다고 한다. 이렇게 끌려다니며 고사를 지내주는데 세집 이상은 내지 않는다고 한다.

용호도에서는 섬이라 배타고 들어 가는데 만신이 도착되면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 서있다고 한다. 무당은 여자들만 자는 사처집에 안내되어 목욕 제계하고 옷을 가라입고 대기한다. 새벽이 되면 당에 가서 새벽 제사(祭祀)를 지낸다.

굿하는 날 당에서 지내는 새벽 제사는 어느곳에나 있는 것이며 제관(祭官)들과 각 소임들과 무당들이 목욕제계하고 소복하고 짚신 신고 당에 가서 먼저 제관과 소임들이 「축을 댑는다」 하여 헌작(獻爵)하고 독축(讀祝)하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고 나면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관만신이 제상 앞에 나가 말로 어느 만신이 굿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뢰고 제배하고 내려 온다.

굿하는 날 아침이 되면 차례대로 굿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신청올림, 상산맞이, 부정굿, 감홍굿, 영정물림, 복잔내림, 제석굿, 성주굿, 소대, 감놀이, 말명굿, 산양굿, 성수걸이, 타

살굿, 군웅굿, 먼산장군걸이, 대감놀이, 백기내림, 조상굿, 선왕모시는구, 장발구, 연산할아밤
영산할맘, 맹인영감굿, 별대동굿, 강병용신구, 순서로 굿을 한다고 한다.

1. 신청올림

신청올림이라 함은 굿하기 전에 굿청에서 악기를 울리고 주당잡귀를 쫓아내어 굿청을 정
화시키는 순서이다. 다른 마을과 같은 굿할 경우에는 서로 먼저 당을 맞으러 가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 신청을 올린다고 한다. 아침 일찍 무당과 제관과 각 소임과 마을 사람들이 도
가(都家)에 모이고 뱃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배의 장군기(將軍旗) 뱃기등 여러가지 기(旗)를
가져다 굿청에 세워 놓고 온갖 기물들을 차려 놓는다고 한다. 굿청은 흔히 당의 옆 마당에
차리는데 육개머리와 같은데는 굿하는 넓은 마당이 따로 있다고 한다. 굿청을 굿당이라 이
르는데 먼저 말뚝을 제개 박고 서까래를 엮고 수수깡으로 바자를 엮어 돌르고 멍석으로 덩
개를 씌워 만든다고 한다.

무당이 평복(平服)으로 대동터에서 간단하게 중당상을 차리고 징잡이와 장고잡이를 곁에
세우고 먼저 징을 치고 다음에 장고를 쳐 신청을 올린 다음 무당이 어떤 연유로 당맞이 할
려고 신사를 드린다는 축원을 하고 주당을 엮어 나간다. 무당이 쿵을 주어 바가지 등을 치
며 「부근님의 주당이야」 「상산 산신님의 주당이야」 「선왕님의 주당이야」 「장군님의 주
당이야」 「별대동의 주당이야」 「만대동의 여러 가가 호수의 남녀 노소 어린 아이들 주당이
야」 하고 소리친다. 무당은 칼산을 던진다.

2. 당산 맞이

당에 가서 신을 모셔 굿당으로 내려오는 순서이다. 무당은 흥치마 두루고 남패자를 걸치
고 흥관디 흘철익을 입고 앞 뒤 흥배를 두루고 호수갓을 쓰고 손에 방울 부채를 들고 조무
(助巫)들도 무복을 갖추어 입고 뱃사람들도 신복(神僕)을 입고 열을 지어서 풍악을 울리며
당에 오른다. 먼저 제물과 상소염이 앞서고 뱃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배의 장군기(將軍旗)와
뱃기 등 여러 기를 들고 풍물을 치고 뒤 따른다. 각 배마다 뱃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기
와 물풍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는 배의 수에 따라 여러 팀이 나서는데 열을 짓
는 순서는 먼저 제비를 뽑아 배 마다 순서를 정하여 놓는다. 그뒤에는 경관만신(주무(主巫))
새만신(조무(助巫))상교대할머니가 거상장단을 치며 따르고 뱃사람들과 마을 사람들도 등신
에 옷이라하여 신복을 입고 춤추며 따라 올라간다.

당마당에 이르면 뱃사람들은 당 앞에 기들을 꽂아 놓는다. 상소염이 당에 들어가 위패에
옷입히고 제상(祭床)을 차리고 재배(再拜)하고 나면 만신이 들어와서 방울을 흔들며 산유만
세장단에 수심가(愁心歌)토리로 당맞이 무가(巫歌)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은 거상장단에 춤
을 추고 나서 흘림 공수를 주고 나면 당 밖에 세워 놓은 여러 깃 폭에 신을 내리고 기마다 잠
간씩 축원을 한 다음 올라 간 순서대로 내려 오는데 뱃사람들은 제마다 쟁과리 징 장고를
치고 호적(胡笛)을 불어 배치기풍장을 치며 엠밀양소리를 높이 부르며 내려온다.

굿패들은 도가(都家)나 대동터에 마련한 굿청에 나오는데 오폭기나 송당기를 든 뱃사람들
은 재빨리 선장으로 달려가 자기 배에 기(旗)를 꽂아 놓는다. 장군기(將軍旗)를 비롯한 다른
기들은 대동터로 모시고 온다. 대동터에 모이면 마당에 큰 함지박두개를 내놓고 하나에는
뜨물을 담고 다른하나에는 맑은 물을 담아 놓은 다음 소염(소임(所任))에게 뚝대(신간(神

竿))를 잡히우고 함지 곁에 있게 한 다음 만신이 징 장고를 치면서 「마을이 대동을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축원하면 뚝대에 신이 내려 뱅뱅돌다가 함지박에 떨어지는데 맑은 물에 떨어지면 「장원하였다」고 「기쁘다」고 환송을 지르며 풍장을 치고 춤을 춘다.

3. 세경돌기

굿패들이 뚝대(신간(神竿))을 모시고 집돌이를 하는 것을 황해도에서는 「세경돈다」고 한다. 상소염이 뚝대를 잡고 하소염 상산막뚝이 경관만신 새만신 상교대할머니 등으로 구성된 굿패들이 집집 돈다. 용호도와 같이 큰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도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한다. 집집마다 들리면 주인 마당에 고사상을 차려놓은데 무당은 간단히 한 거리를 하여 그 집안은 축원해준다고 한다. 세경돌 때에는 개인가정뿐만 아니라 지서(支署)나 어업조합(漁業組合)까지 돈다고 한다.

집집마다 들리면 형편대로 쌀을 내어 고사상(告祀床)을 차리는데 흔히 한되에서 한 말가량 내놓는다고 한다. 상소염은 집집마다 내놓은 쌀과 돈을 장부에 기록하고 하소염이 돈과 쌀을 지고 다닌고 한다. 세경돌아서 걸린 쌀과 돈은 무당들이 굿한 사례비로 지급되는데 경관만신은 이것으로 새만신들에게 떼어주고 또 심부름도 하고 여러가지 수고를 하였다 하여 상산막뚝이에게도 약간 떼어 주었다고 한다.

4. 문잡아 들음

세경 돌기를 마친 굿패들이 뚝대를 모시고 굿청에 들어갈 때 맞이하는 절차를 「문잡아 든다」고 한다.

세경돌기를 마친 굿패는 다에 올라가 한바퀴돌고 한 잠을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춘다. 만신들과 뚝대를 든 상소염과 사자업이라고 하여 바가지 탈을 쓴 사람과 그 밖에 여러 탈을 쓴 사람들이 여럿 어울려 춤을 추고 나서 다시 풍악을 울리며 굿청으로 들어 간다. 고자에 따라서는 꽃으로 장식한 말에 경관 만신을 태워 맞아 들이기도 한다. 굿패들이 굿청에 당도하게 되면 제관과 소염들이 굿청에 좌정하고 있다가 뱃사람들과 함께 굿패를 맞아 들이는데 이때 여러가지 재담이 있다고 한다. 일부러 장난을 걸려고 길을 가로 막고 말을 거는데 뱃사람들이 「풍류소리가 낭자하니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이 마을에 쳐들어 오는 산적이냐」 또는 「선창에 쳐들어 오는 해적이냐」하고 짓궂게 묻고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가지 즉흥적인 재담을 하다가 굿패 쪽에서 「아무데서 온 어느 만신이 마을에 세경을 돌아 명과 복을 주려고 한쪽에 복을 실고 한쪽에 명을 실고 가운데 유리동자 봉을 박아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을 하면 저쪽에서는 「그러나 시국이 하도 분분한 시국이 돼서 마적단이 풍악을 울리며 들어온 줄 알았드니 그런게 아니구나 그럼 들라 해라」하고 대답을 하고 굿청 앞에 아취형으로 나무를 엮어 만든 술문에 섰던 뱃사람들과 굿패들이 모두 함께 풍악을 울리며 한참 춤을추고 나면 뱃사람들이 뒤로 물러 나고 굿패들이 술문을 들어서 굿청에 들어간다.

세경돌기가 없는 고장에서는 바로 문잡아드는데 육개머리 같은데에서는 당에서 상소염이 장국기를 들고 다른 사람이 봉죽을 들고 내려와 바로 굿청에 들어온다고 한다.

5. 초부정

굿청에 잡귀(雜鬼)를 물리치고 부정(不淨)한 것을 가셔내어 정화(淨化)시키는 순서이다. 무당이 입은 복색(服色) 그대로 즉 홍(紅)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흥관디 흥철익을 입고 앞 뒤 흥배를 두루고 호수갓을 쓰고 손에 방울 부채 들고 사방(四方)에 반절하며 돌고 나서 상교대 앞에 서서 긴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세바디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두장단을 메기면 상교대와 새만신이 두장단을 그대로 받는다.

<무 당> 아왕임금의 만세야

<상교대> 아왕임금의 만세야

<무 당> 천세 만세

<상교대> 천세 만세

<무 당>사루 사루 사루 만세로 살아

<상교대>사루 사루 사루 만세로 살아

무당은 만세받이 무가를 마치고 「초감홍 초부정 일구등신……」 하고 노래를 띄우고 나서 「일구등신 각구신명이 나오셔서 좌정하신다」 하고 쇠를 띄우고 나서 거상장단에 춤을 춘다. 무당은 춤을 차춤 조여 가다가 굿장단으로 춤을 몰아가다 춤을 마치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술잎으로 찍어 사방에 뿌리며 축원을 하고 자진만세장단으로 수심가토리로 날만세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한장단을 메기면 상교대가 한장단을 그대로 받는다.

<무 당> 에라 만세

<상교대> 에라 만세

<무 당> 아왕 임금 만세

<상교대> 아왕 임금 만세

<무 당> 잘 놀고 나요

<상교대> 잘 놀고 나요

<무 당> 만부정을

<상교대> 만부정을

<무 당> 영부정을

<상교대> 영부정을

<무 당> 풀어내고

<상교대> 풀어내고

<무 당> 놀고 납니다

<상교대> 놀고 납니다

날만세를 마치면 부정굿을 끝낸다

6. 초감홍

굿청에 청한 여러 신들을 좌정(坐定)시키는 순서이다.

무당이 홍(紅)치마를 두루고 남쾌자 걸치고 남철익을 입고 앞 뒤 흥배 달고 호수갓쓰고 손에 방울 부채를 들고 사방에 반절을 하며 돌고 나서 상교대 앞에 서서 긴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세받이 무가를 부른다. 무당이 두장단을 메기면 상교태와 새만신이 두장단을 그대로 받는다

<무 당> 천하궁의 삼(三)의 삼천(三天)

<상교대> 천하궁의 삼의 삼천

<무 당> 지하궁으로 이십팔(二十八) 숙(宿)

<상교대> 지하궁으로 이십팔(二十八) 숙(宿)

<무 당> 돌아오는 일만국에

<상교대> 돌아오는 일만국에

<무 당> 저 가는이 화산고개

<상교대> 저 가는이 화산고개

무당은 이와 같이 만수반이 무가를 마치고 나서 노래를 띄우고 나서 감홍쇠를 열고 나서 재배(再拜)드리고 거상장단에 춤을 추고 굿장단으로 춤을 조여 가다가 홀림공수를 주고 긴 공수를 내리고 거상장단에 춤을 추고 나서 연희공수를 준 다음에 굿청에 모인 뱃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복잔을 내리고 자진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날만세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한장단을 메기면 상교대가 한장단을 그대로 받는다.

<무 당> 에라 만세

<상교대> 에라 만세

<무 당> 초감홍

<상교대> 초감홍

<무 당> 잘 놀고 갑니다

<상교대> 잘 놀고 갑니다

<무 당> 일구등신

<상교대> 일구등신

<무 당> 각구신명

<상교대> 각구신명

<무 당> 놀고 갑니다.

<상교대> 놀고 갑니다.

이렇게 날만세장단에 초감홍굿을 모두 마친다

맨 처음 긴 만세장단에 부르는 무가에는 이런 별난 마달(무가 사설)을 넣는 수도 있다고 한다. 「 감홍신령이 산에서 새니 잠인들 울소냐 감홍신령 모시려고 사서신경을 서서 새와... 감홍신령님이 오실적에 무스나 갓을 쓰고 왔고. 한양가서 갓을 사니 끈이 없는 갓을 샀네. 쓰고 보니 빗갓일세 건국영정에 수천갓끈이 제격이라. 감홍신령이 입입으실 옷은 무스나 옷을 입으셨소. 혼술 없는 골용포요 즐기없는 활옷이라. 창 밖에다 유자를 심어 유자낭귀가 학이 낮어 학에 새끼는 늙어갈 때 나랏만신은 젊어 간다.....내려 깔아서 화명석에 치 깔아 용명석에 돌두어 깔아서 별명석에.....」

7. 영정물림

초감홍굿에 청한 신들을 따라온 부정한 귀신, 저승에 못가 떠도는 귀신을 불러 먹여보내는 굿이라 한다.

철물이굿과 같은 작은 굿에서는 바가지로 음식을 담아 놓고 굿을 하나 대동굿과 같은 큰 굿에서는 영정상을 돼지 잡고 여섯 상을 차려 물리는 것이라 한다. 빈 바가지를 놓고 굿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담아 놓고 술잔을 엮어놓고 소지를 올리고 무당은 흥치마를 두르고 남쾌자를 걸치고 머리 수건을 동이고 전립을 쓰고 자진만세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세반이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한장단을 메기면 상교대가 그대로 받는다.

- <무 당> 에라 영정
- <상교대> 에라 영정
- <무 당> 영정이야
- <상교대> 영정이야
- <무 당> 초영정에
- <상교대> 초영정에
- <무 당> 기다리던 영정
- <상교대> 기다리던 영정
- <무 당> 바라던 영정
- <상교대> 바라던 영정
- <무 당> 해먹던이 영정
- <상교대> 해먹던이 영정
- <무 당> 철먹던 영정
- <상교대> 철먹던 영정

무당은 만세반이 무가를 주고 받은 다음 삼지창(三枝槍)을 장고 숙바에 꺼꾸로 꽂아 놓고 삼지창의 장자루에 바가지를 얹어 덮어놓고 나서 맴돌고 바가지를 떼어서 머리 위에 이고 굿장단에 춤을 추다가 소임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 놓고 「모든 음식과 영정들 객신들 뜯 귀신들 이 뱃짐에 수비짐에 실어다 앞 바다 열두 바다, 뒷바다 열두바다, 이십사강 씩 음식은 물리고 뜯 신들 다 받아가 지고 물리 칩니다」 하고 말하고 이 바가지를 소임에게 주면 소임은 술문 밖에 나가 등지고 서서 바가지를 굿청마당으로 향하여 술문 넘어로 던지는데 바가지가 재켜 떨어지면 영정이 물러 나는 것이고 떨어지면 잘 무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음식 바가지를 술문 밖에서 굿청 마당으로 던진다. 재켜 떨어지면 「칼산 던진다」 하여 대신칼을 땅에 던지는데 자루 쪽을 잡고 내던져 칼 끝이 모두 밖으로 떨어지면 잘 된 것으로 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모두 밖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진다.

8. 복잔 내림

제관(祭官)과 각 소임과 뱃사람들에게 술잔을 내려 복(福)을 받도록하는 순서이다. 간단히 할 때에는 초감홍굿 뒤에 복잔 내릴 때 상을 차려놓고 잔을 내리는 수도 있고 크게 할 때에는 따로 순서를 마련하여 복잔을 내린다. 상을 따로 내놓고 그위에 베를 깔아 놓고 그 위에 사람 수 대로 술잔을 늘어 놓고 잔에 절반씩 부어 놓은 다음 무당이 손에 대고 앉아서 「명잔입니다 복잔입니다 금년 신수 만대동을 대령하고 명복 많이 주신다하거든 알아봅시다」 하고 노래를 띄워 축원하여 잔이 흔들리면 좋다하고 내리지 않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걸로 보고 흔들리지 않는 내력을 풀어서 흔들릴 때까지 축원하여 내려주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축원하여 복잔을 따로 내려준다.

9. 제석굿

제석굿은 제석신에게 명(命)과 복(福)과 재수를 축원하는 굿이다. 무당은 홍(紅)치마를 두르고 남괘자를 걸치고 흰장갑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바른 어깨에 청가사를 걸치고 왼 어깨에 홍(紅)가사를 걸치고 염주를 목에 걸고 허리에 홍(紅)띠를 두르고 손에 갱정을 들고 굿

상 앞에 선다. 제석굿상(床)은 좀 다르게 차리는데 큰 상에 동그미떡, 입쌀반데기, 생두부 한 모, 녹두 청포1모, 과일, 나무새로 차린다. 제석상 앞엔 는 말에다 쌀을 가득담아 놓고 큰 양푼에 밥을 가득 담아 놓고 주발에 밥을 가득 담아 두개를 놓고 또 주발에 정화수를 한 두릇 떠서 시럽에 받쳐 놓고 술가지를 하나 꺾어 얹어 놓는다. 철물이곳에서는 칠성(七星) 무명을 갖다 놓는 것이지만 대동굿에서는 무명을 갖어다 놓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무당은 굿상앞에 서서 갱정을 치면서 사방(四方)에 반절하며 한바퀴 돌고 나서 상교대 앞에 서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수반이 무가(巫歌)를 메기고 받는다. 이때에 소임과 뺏사람들이 나와서 굿상을 향하여 절을 한다. 무당은 두 장단을 메기면 상교대와 새만신들은 「아아에」하고 입타령으로 두장단을 받는다.

<무 당> 마지를 가요 마지를 가요

제불제석님 마지를 가요

<상교대> 아아에 에에에

제불석님 마지를 가요

<무 당> 천지별권 일월동락

일월동낙에 하월 받아

<상교대> 아아에 에에에

일월동남에 하월받아

<상교대> 사바 세계는 남섬부주

해동제일은 조선국에

<상교대> 아아에 에에에

해동제일은 조선국에

무당은 만세반이로 계속 축원하는데 「가가호수 든가중 난가중 대한가중에 소한가중에 ○호 가족입니다. 대한 가중, 소한 가중, 든 가중난 가주에 가지막치마배 성 다른 가중에 본 다른 가주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노인은 갱소년 젊은 사람 수명장수, 작은명 이어주시고 기면살에 담아 줄 적에 동해사성 남해육성 소도팔성 북두칠성 삼태육성 보별시 천지신명 일월성시 옥황신시 섬유선과 산천칠성 밀업칠성 석함칠성님, 공증칠성 조상칠성 사부칠성 성주칠성 용용칠성」을 들먹이며 제석을 찾아서 축원하고 「칠성 제석님 하강 에헤……」하고 노래를 띄우고 나서 방울부채를 들고 쇠를 열고 재금들고 춤장단에 바라춤을 추고 바라를 철철철치다가 땅에 던져 점을 치는데 모두 뒤집어지면 좋고 하나라도 엮어지면 좋지 안다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다시 던져 모두 뒤집어 질 때까지 계속 한다. 무당은 굿상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바세계 남섬부주 해동하고 조선국에 거주 건명 아무대요 해운대년을축년 다래월색은 ○월 ○일 ○○가정 ○○신사 드릴 때 영부정을 베끼시고 칠성님에 든부정 제석님에 난부정……」하고 덕담장단 비슷하게 부정경을 읽어 부정을 푼다. 무당은 굿상앞에 절하고 향로를 들어 보이고 향로를 놓고 재배하고 거상장단에 춤을 추고 벽구장단에 춤을 몰아가고 연풍돌고 까치춤 춘다.

무당은 옥황상제 옷을 입고 용궁(龍宮)애기 옷을 입고 물동이 위에 올라 서서 춤을 추고 공수를 주는데 이것을 「용궁(龍宮) 탄다」 또는 「동이 사슬 탄다」 이른다. 무당은 집집마다 공수를 주고 나서 물동이에서 내려 온다.

무당은 꽃(지화(紙花))를 들고 장구 앞에서 한 바퀴 춤추며 돌고 나서 상교대에서 「상좌야 상좌야 이게 무슨 꽃이냐」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우리는 모르니 화공선생을 불러 모아 야 압니다」하고 대답한다. 무당이 화공선생을 불러 꽃의 내력을 물어 본다. 이 대목에서 화

공선생이라 함은 종이로 꽃을 만든 지화장(紙花匠)을 가리킨 것이다. 지화장은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에서 뿌리채 뽑아왔다고 「백모란에 시모란」 등 갖가지 모란 종류를 주워 심고 서천서역국에서 구해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재담을 늘어 놓는다.

화공선생은 「그걸 구해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했는지나 압니까」 「어떻게 애써서 구해왔는지 알고나 그러느냐」 「하 그거 구해 오느라고 혼났읍니다」 「무쇠배를 무어 타고서 강을 건너 갈려고 하니까 무쇠라고 가라앉고 돌이라고 석선(石船)이라고 모래라고 가라 앉고…… 일엽편주(一葉片舟) 두둥실 배를 몰때 구름으로 배를 못고 바람의 뜻을 달고 이십사강을 얼른 건너가서 청쇠약국에 들어가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머리감고 하탕에 수족씻고…」 「구월산에 주걱을 걸고 묘향한에 향을 피워놓고 구해왔는데…」 이렇게 꽃을 구해온 내력을 길게 재담을 늘어 놓으면 무당은 「그럼 어떻게 구해왔느냐 뿌리채 빼어왔느냐 뜯어왔느냐」 하고 물으면 화공선생은 「아 명(命)사리 복(福)사리 명화복화(命化複花) 내 썩 뿌리채 빼어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무당은 「이 대동을 하고서 없는 자손 점지하고 있는 자손수명장수 할테니 그꽃을 백(白)모래에 갔다 꽃아 놓아라」 하고 내어 주면 그 꽃를 가져다가 쌀독에 꽃아 놓는다.

무당이 「푸른 장삼」 이라 하여 푸른 옷을 입거나 육환장을 짚거나 때로는 바랑을 짚어지기도 하여 승복(僧服) 비슷하게 차리고 「신의 원당(굿청)」에서 사방(四方)에 반절하며 돌고 나서 상교대에게 「상좌야 상좌야」 하고 부르면 상교대는 「네」 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중중하니 돌아 먹든 돌중이 아니며 머리를 뽀뽀 깎아서 돌아래 파계승이 아니요 칠성공부를 다

┆ 중상이란다」 육천대사 무학대사 성도 사는 도사님이시란다. 중상이 이렇게 노시고선 한단다. 이래도 하고 신에도 하외다하외 동심 일기자참해서하고 한바퀴돌고 난단다」 하고 말하고 한바퀴 돌고 나서 장고 앞에 서서 상교대에게 「상좌야 상좌야」 아고 불으면 네네 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중중하니 돌아 먹든 돌중이 아니요 머리를 뽀뽀 깎아서 돌아래 파계승이 아니고 칠성공부를 받아서 중상이란다」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네 네」 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다시 「상좌야 상좌야 칠성 공부를 들어 보렴」 하고 말하고 나서 산유장단에 수십가토리로 만수반이 무가를 상교대와 2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무 당> 상좌야 상좌야

칠성공부를 들어봐라

<상교대> 아하에 아하에

아하에 칠성공부를 들어봐라.

무당은 이와 같이 산유장단에 만수반이로 「공부를 갈적에 자지 바랑 등에다 매고 공부를 하러갈 적에 각명 각성 타명 타성 동냥간다. 사방에 명사구물을 쳐놓고 이쁜 처녀 동냥을 갈때 잔 처녀는 손세로 술술 빠지고 굵은 처녀가 걸려들면」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말로 「명산대천에다가 절을 짓고 법당 뒤에다가 이를 얼고 절로 얼어서 몰아 놓면 애기가 들면 어떻허느냐 아들을 나면 칠성님의 차지요 딸을 나면 마나님의 차지요」 하며 한참 객담을 늘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꽃같은 홀렁 벗어 후대지석으로 성겨 놓고 장삼을 벗어 북북 뜯어 얘기포대기로 띄어 주고 가사는 북북 뜯어서 얘기 굴래로 띄어 주고 바래 갱정은 궁궁 치어서 얘기 반상기를 만들어 주고 장구통은 팡팡 지어서 화로통으로 만들어 쓰자 이만하면 칠성공부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면 「칠성 공부 다 틀렸구다. 그렇게 하다가 매맞고 쫓겨나기 똑 알맞겠다」 하고 대답한다. 이렇게 한참 상교대와 재담을 늘어놓는다.

무당은 「야 이놈들 너희들 하고 밤 낮 내가 이래봤자 돌중 면할 길이 없으니까 너희들 저만치 물러가 있거나. 나 혼자 깊은 방안에 상방 안에 들어가 혼자서 소중하게 공부를 해보

른다」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한다. 무당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석님께 소승 비나이다. 소승에 원이 있가오이다. 동지전달 긴긴 밤에 원앙금침 마주 비고 마마님하고 하룻밤만이라도 잠깐」 하고 말하는데 상교대와 새만신들은 무당이 「잠깐」 하고 말하는 순간과 맞추어 장과와 징을 동시 「꽝」 하고 말하는 순간과 맞추어 장고와 징을 동시 「꽝」 하고 친다. 상교대는 「저 봐라 중이 벼락 맞는다. 저렇게 공부한다고 들어가더니 어중히 바람 피고 난봉타령만 해가지 지금 벼락 맞는다. 벼락을 칠려고 지금 맑은 하늘에서 뇌성벽력을 하고 오는 중이다」 하고 말하면 무당은 「야 이놈아 벼락이 아니라 너 이놈이 징은 「꽝」 하고 장고는 「통」 해서 너 이놈들이 그렇게 했지 벼락은 무슨벼락이나」 하고 말하고서 「독수리 개미 아우 아우」 하고 독수리 쫓는 시늉을 하고 돌아서면 상교대는 「아이고 독수리개미 쫓는거봐 여태 보니까 장다리밭에서 장다리 꽃을 피워서 씨를 받자고 하였더니 돌중놈이 떼굴 떼굴 치굴고 널굴고 놀아 나서 씨받기는 다 틀렸다」 하고 말하고 나서 「중의 씨가 어떠냐」 하고 말하면 무당은 「객설 승설 다 치고 칠성공부를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지」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어쩐지 돌부처님 노해서 돌부처 떼그르 굴러서 목가지가 쨍하고 나간다」 고 말한다. 무당은 「다시 해보자 염주 서말 서되 쓰고서 어떻게 해 볼께」 하고 나서 공부하는 과정을 말로 주서 섬기며 「술래소루다가 이름하여 검은 암소로 받을 갈아서 염주를 받아가지고 그 염주가 점점 자라서 김을 매고 물을 주고 점점 자라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 만백성의 가지요 서남으로 뻗은 가지는 부귀영화요 남북으로 뻗은 가지는 남녀 자손이 무성하고 하늘공천 뻗은 가지는 옥황님과 상해해의……목마른 백성 물을 주고 오곡농사 가득히 잘되니 옷나무에 옷이 열리고 밥나무에는 밥이 열렸으니 이만하면 시성공부가 잘 되었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이제야 녹두알 만큼 익어 갑니다」 하면 무당은 「그러게 아니라 각명口각성 시주양석을 받아가서 이 나라에 만 백성을 위해서 임금이 위로 계시고 아래고 만백성이 있으니 만치 백성이 잘 되게끔 불공을 드려야겠다」 하고 말한다. 상교대는 「이제 그만 하면 이제 되겠으니까 해보시오」 하고 말하면 무당은 돌아서서 찬물 그릇을 들고 나와 솔잎파리로 뿌리며 천수를 푼다. 방아 찧는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소리를 메기고 받는다.

<무 당> 천수 가요

천수 가요

<상교대> 어허리

천수 가요

<무 당> 청상 옥황님

일월성신 천지신명

<상교대> 어허리

천수 가요

<무 당> 든 부정 난 부정을

천수 물로 둘러내어

<상교대> 어허리

천수 물로 둘러내어

무당은 이렇게 길게 천수를 푼고 나서 말로 「만조백관에 신의창배 신의창배야」 하고 나서 「상좌야 상좌야 검은나 땅에 신하 백선은 잠을 들여놓고 약수 삼천리에 잠깐 건너가 삼신산 들어가 불로초를 구해다가 명이야 복이야 골고루 주고 가잔다」 하고 말을 하고 돌아서 상에서 떡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들고 상교대 앞에 서서 「야 그러나 저러나 삼신산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가지고 댕기야 되냐」 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아이고 칠성님 맘대로 돌아댕기어 보구료」 하고 말하면 무당은 「에끼 이놈아 너는 어른을 섬겨 보고 아이 길러보았느냐 어디 칠성님보고 맘대로 돌아다니라니」 하고 말하고 「그럼 무어라고 해야 되느냐」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사라고 그러세요」 하고 일러준다. 무당은 「사령 불사약을 사령 삼심산 불로초를 사령」 하고 불사약 사라고 외치나 대답이 없으니 무당은 다시 「사면서 중하고 끼어서 불로초를 사령」 하고 외쳐도 대답이 없으니 「아무리 당겨도 도무지 사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그거 중소리는 빼야지 중하고 사라고 하니까 신불 천왕이 딸아들까봐 안사갔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중소리 썩 빼고 사라고 그러세요」 하고 일러준다. 무당은 「사령 사령 중소리는 썩 빼고 불로초만 사령」 하고 사라고 외치면 선주부인이 치마폭을 벌리고 복떡을 받는다 하여 무당이 주는 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무당은 긴만세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염불무가를 상교대와 메기고 받는다.

<무 당> 나무아미타불

<상교대> 나무아미타불

<무 당> 명이가고 복이가요 불사약에

<상교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2장단씩 메고박기를 오래 계속하여 여러 부인들에게 복떡을 나누어 준 다음 무당은 「칠성 제석님 잘 놀고 나요」 하고 긴 노래를 띠고 무당은 옷타령으로 들어간다.

무당은 산수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상교대와 옷타령을 메기고 받는다.

<무 당> 탈의로다 탈의로다

옷을 벗어서 탈의로다

<상교대> 아하에 아하에

옷을 벗어서 탈의로다

<무 당> 장삼을 벗어서

칠성당에 걸고 가고

청가사 흥가사는 벗어서

가사나무에다 걸고간다

<상교대> 아하에 아하에

가사나무에 걸고 가다

이렇게 옷타령을 부르고 나서 자진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날만세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 당> 에라 만세

<상교대> 에라 만세

<무 당> 칠성제석

<상교대> 칠성제석

<무 당> 잘 놀고 나요

<상교대> 잘 놀고 나요

<무 당> 뒤진 공사 없이

<상교대> 뒤진 공사 없이

<무 당> 신청문에

<상교대> 신청문에

<무 당> 불 밝히어

<상교대> 불 밝히어

이렇게 무당과 상교대는 날만세 무가를 부르고 제석굿을 마친다.

10. 성주굿

철몰이굿과 같은 개인 사택에서 하는 굿은 집건물이 있으니 집 건물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굿을 크게 하는 것이나 대동굿에서는 당집이 성주가 되므로 성주굿을 크게 하지 않는다 더구나 당이 주절이나 틀어논 건물 같으면 성주굿이 필요없고 당집을 따로 지어놓은 경우에는 성주굿을 간단히 한다. 만일 간단하게나마 성주굿을 하는 경우에는 무당이 흥치마 두루고 남괘자 두루고 남관디를 걸치고 남철릭을 걸치고 갓을 쓰고 손에는 방울부채와 조그마한 무명 한끝과 꽃 한포기와 서리화대를 들고 서서 사방에 반절하며 한바퀴 돌고나서 굿상 앞에 서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2장단 상교대와 메기고 받는다.

<무 당> 노십시다 노십시다

성주관관님 노십시다

<상교대> 아하에 에에헤야

성주관관님 노십시다

<무 당> 와가 성주님 초가성주

성주목사 성주부인

<상교대> 아하에 에헤헤야

성주목사 성주부인

이와같이 만수반이로 축원을 하고 무당은 산나무 밑에 가서 방울부채를 높이 들고 흔들여 쇠내리며 성주신을 받는데 「단말래기 서성주 단중말래 새초성주 부녀 같은 여성주 호반 같은 남성주」 하고 성주를 받아 가지고 술한잔하고 쌀 한줌 던지고 굿당으로 들어 간다. 음식 차린 것을 흠양하고 짓간하신 다음에 춤장단에 춤추고 맴돌고 흘림공수 주고 술한잔 들어 제관이나 상소염을 주고 또는 도가집 아주머니를 주고 무당은 자신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1장단씩 상교대와 날만세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 당> 에라만세

<상교대> 에라만세

<무 당> 성주님

<상교대> 성주님

<무 당> 새로이 놀고

<상교대> 새로이 놀고

이렇게 자진 만세장단으로 「성주관님들 밤이면 찬이슬 낮이면 된 햇별에 계시다가 악양속에 석수 잡아 신선 같이 모셔여서 안심 좌정하고 잘 놀고 났다」는 뜻으로 날만세 무가를 부르고 나서 장고 앞에서 한바퀴 돌고 방울을 놓고 마친다.

철몰이굿에서는 목수들이 툽질하는 시뿡 집짓는 시늉 등 갖가지 연희적(演戲的)인 장면이 있으나 대동굿에서는 이것을 약한다고 한다.

11. 소대감

제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의 하나인 소대감에게 명과 복을 축우너하는 곳이다 무당은 흥치

마 두루고 두루마기 입고 머리에 뽕뽕이(패랭이)를 쓰고 손에 소당기(소대감기)와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사방에 큰절하며 한바퀴 돌고 나서 반절하며 상교대 앞에 서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수 받이 무가를 2장단씩 상교대와 메기고 받는다.

<무 당> 노십시다 노십시다

소대감님 노십시다

<상교대> 아하에 예헤헤

소대감님 노십시다

이렇게 무당은 만수받이로 축원을 하고 방울을 놓고 소당기를 들고 빠른 장단에 춤을 추고 나서 상교대 앞에 서서 「여복소」 하고 부르면 「올씨다」 하고 대답하면 만신은 「술술 벌어드리는 소대감 너구리 발림 넉넉히게 도와달라고 만대동을 대접했느냐」 하고 홀림공수를 주면 「올씨다」 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각명각성 타명타성 노인은 갱소년 젊은 사람은 수명장수 받들어서 잘 돕고 섬기고 받들어 본테다라」 하고 공수를 하고 장구 앞에서 한바퀴 돈 다음 상교대에게 「여복소」 하고 부르면 상교대는 「오올씨다」 하고 대답한다. 만신은 「우리 술술 벌어드리는 소대감님이 많이 벌고 늘어주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왔던김에 거저 들어가겠음나 명이나 타다 주고 복이나 타다 주어야 갓음네 뒷줄 좀 당겨줍소」 하고 말하면 「올시다 뒷줄 땡기란다」 하고 상교대가 말하고 복타러가는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명타러가는 노래와 복타러가는 노래를 합창한다.

명 타러 가잔다

명 타러 가잔다

철성님 전으로 명타러 가잔다

지호자자 정기 좋아

예헤헤 어허 얼싸, 얼싸

얼싸 좋다 지화자 좋다 옹헤야

명 명을랑 타다가 품안테 꼭 꼭 안겨주고

복을랑 타다가 등에다 진잔다

지화자 정기 좋아

예헤 얼싸 얼싸 좋다

지화자 좋다 옹헤야

이렇게 명타고 복타는 노래를 길게 부르며 줄을 섬기고 나서 「이만했으면 늘어나고 벌어지고 일대동네 물 맑히고 복도 많이 타다주고 명도 많이 타다 주니 부자 되것씀네」 하고 말하고 나서 공수를 주고 제관이나 소염에게 명잔을 주고 잘놀고 간다고 노래를 띄우고 자진만세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날만세 무가를 한장단씩 상교대와 메기고 받는다.

<무 당> 에라 만세

<상교대> 에라 만세

<무 당> 소대감님

<상교대> 소대감님

<무 당> 놀고나요

<상교대> 놀고나요

이렇게 날만세무가를 부르고 맞춘다.

12. 도산말명 방아찝

말명신이 방아를 쪼으므로서 복을 불러 드린다는 곳이다. 무당이 흥치마 두루고 남치마 두루고 그 위에 연두몸을 삼사동을 단 동달이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손에 방울만 들고 당교대 앞에 서서 사방에 반절하고 돈 다음 자진만세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한 장단씩 상교대와 만세받이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 당> 놀러와요

<상교대> 놀러와요

<무 당> 구름은 도산

<상교대> 구름은 도산

<무 당> 바람은 도산

<상교대> 바람은 도산

<무 당> 해가 뜨는 도산

<상교대> 해가 뜨는 도산

<무 당> 달 갈던 도산

<상교대> 달 갈던 도산

이와 같이 만세방이로 도산신을 청하고 나서 역시 만세 받이로 말명신을 청한다.

<무 당> 천하에도 말명

<상교대> 천하에도 말명

<무 당> 지하에도 말명

<상교대> 지하에도 말명

<무 당> 말명 할마니

<상교대> 말명 할마니

<무 당> 지신집에 큰 애기

<상교대> 지신집에 큰애기

<무 당> 살양집에 며누리

<상교대> 살양집에 며누리

<무 당> 봉산에 오라버이

<상교대> 봉산에 오라버이

<무 당> 방아 쪼러와요

<상교대> 방아 쪼러와요

하고 만수 받이로 한참 말명신을 청한 다음 매우 빠른 춤장단에 깨끔박질춤을 추다가 방울을 넙다 흔들며 상교대 앞에 와서 「여뵘소」 하고 부르면 상교대는 「오올시다」 하고 대답하고 대답하면 만신은 「무슨 장고를 재깍팔이(뽕배팔이)새장구 물뎛하고 귀떡쟁이 솔뿌리 캐뎛 하나? 두늛은이 딸네집에 가뎛 슬슬 처야지 그렇게 침나」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아니 장구쟁이가 춤따라 가기 마련이지 춤을 돌가불리면서 할미새 궁둥이 까부리뎛 하면서 어떻게 추는지 장구가 춤을 쫓아갔지 장구가 빨리친다고 그래슬겨」 하고 대답하면 만신이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뎛쇼 그냥 도무지 장고를 어떻게 몰아치는지 춤을 추다 못해 비벼춤네」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그개 아니라 호박꽃에 뎛뎛그리가 뎛뎛뎛뎛뎛뎛 하면서 할미새 궁둥이 까부리뎛 춤을 추어서……」 하고 무당에게 고약한 욕을 하면 무당은 욕을 했다거니 안했다거니 입씨름을 하다가 무당이 「했다거니 안했다거니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니께 액명(누명)을 벗고 가야 췌음매」 고 말하면 상교대는 「그럽쇼」 하고 말하고 무당과 상교대는

방아쪼는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부귀덩덩타령을 합창한다.

부귀 부귀 부귀덩덩
부귀 부귀 부귀덩덩
부귀야 덩덩 잘 살아라
부귀 부귀 부귀덩덩
아들 딸 낳고서 잘 살아라
아혼아흠에 복감 채고
부귀 부귀 부귀덩덩

하고 부귀덩덩타령을 부르다가 무당이 「웁치 이제와 보니깐 아 내가 이랬지 그랬습니까」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웁지 이제와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구만 거그다 대고 보니깐…… 그러니까 잘 못 들었나」 하고 여러가지 재담을 나누다가 만신은 굿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굿상의 음식을 동고리 짝에 담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흠치는 시늉을 한다. 흠친것을 머리에 이고 한참 춤을 추고 다니다가 상교대 손등을 만져보며 「아이고 저것좀 봐 상장구 할머니 굿하러 와서 굿한다고 하더니 순 도둑질만 허고 이 손구슬놈이 잃었음매」 하고 말하고 구경꾼들에게도 상교대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거봐 도둑질 해서 이렇다고」 말하면 장고잡이는 「아니 도둑질은 이녀네가 했지 내가 했음나」 하면 무당이 「내 손 끝 좀 봅소. 손 끝이 풀꽃같이 이렇게 양끝이 뽀족 뽀족한데 이 할머니는 손 꺼슬럼이 잔뜩 일언 것을 보니까 도둑질한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 무당과 상교대는 도둑질은 했다느니 안했다느니 옥신각신하다가 상교대할머니는 만신보고 「그럼 감홍당에는 왜 갔됐으껴」 하고 물으면 만신은 「감홍당에는 초감홍 초부정님이 잘 받았나 가 보았지」 하고 대답하면 상교대는 「그럼 칠성당에는 왜 갔었다」 하고 물으면 무당은 「이 집에다 아들 딸 명복 많이 주겠다 칠성님에게 가봤구」 하고 대답한다. 상교대 할머니는 「애기씨당에는 왜 갔됐었나」 하고 물으면 아들 딸 중신 들러 왔다 갔다 했음네」 하고 대답하면 상교대할머니는 그것도 「그렇듯 하구만 그럼 조상당에는 왜 갔었나」 하고 물으면 무당은 「구조상 신조상 서로 분해사는 조상에 잘 잡수고 극락으로 가지갔다 가봤음네」 하고 대답하면 상교대할머니는 「다주워 대니까 그것도 어수대면허게 그렇듯 하고만」 하고 말하면 무당은 「그러나 저러나 저러나 이녀네 영감 멧이나 돼」 하고 물으면 「영감은 멧이야 하나지」 하고 대답한다. 「하나 데리고 살다가 도토리 망맹이 육해살이 끼어서 팻을 가는데 딸각 죽으면 어떻허노」 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도리어 무당에게 「아니 영감을 멧이나 데리고 살던게 그래」 하고 물으면 무당은 「아혼아흠이야」 하고 대답한다. 상교대는 「저걸 어떻게 아혼아흠인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 「백으로 채우러 왔지」 상교대는 무당에게 「그건 다 뭐하는 서방이야」 하고 물으면 무당은 「담 안으로 하나 담 밖으로 하난데 하나도 버리고 내버릴게 없담네」 하고 대답한다 상교대는 「뭐 하는데 주워대봐」 하고 말하면 「무당은 주워대볼까 셋루발이는 쓸어드리고 몽둥발이는 몰아드리고 앓은뱅이는 앓아서 집보라고 두어 두리고 중신랑은 이담에 죽어지면 극락가라고 염불해달라고 두어 두리고 통인신랑은 귀잡고 입맞추라고 두어 두리고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아혼아흠서방이 하나도 노는 사람이 없다 우리 아혼 아흠서방이 지금 저기서 이 떡을 가져오면 구워먹을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맥이여야지」 하고 말하고 나서 무당은 「그러나 저러나 예장을 받아야지」 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무슨 예장이야 그건 뭘 다 그렇게 많이 받았어」 하고 삼색헌검을 가리키며 물으면 만신은 「이것은 거불채 이불채라고」 하고 대답한다. 만신은 반대기를 가리키며 「그건 또 뭐야」 하고 물으면 만신은 「쇠똥 부치기」 하고 나서 똥그란 떡을 들고 「당나귀똥」 이렇게 동고리짝에 들었는 음식을 하나 하나 들어 보이

며 「꽃감은 로리개, 산적은 귀뚜리미 결각, 안개 빠다구, 처녀 ○○, 중의 상투」라고 말하며 재담을 늘어 놓으면 상교대는 「어데루 시집을 가는데 뭘 다 해가지고 와. 옷은 뭘데」하고 물으면 무당은 「등 터진 버선에 말 없는 치마에 밑없는 훗바지에 깃없는 저고리에 날없는 찻신에 쇠말뚝 숯덩에 땡기쇠 이렇게 해가 지고 간담네」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함은 누가 지고가」하고 물으면 무당은 「메뚜기가 가」 「가마는 뭘 타고가」 「달기둥저리 타고가지」 「가마동채는 누가 매」 「조막손이가 매지」 「그럼 어디루 시집을 가」 「하늘로 문난 집으로 간다네」 「에구 그럼 돼지우리로 시집을 가는구먼」 「그러나 저러나 시정시대패가 늦어 가니까 우리 아흔아홉의 서방이 앞남산에 모닥불 놓고 기다리니 이것 같다 구워 먹어야겠음네 덩기덩기합소」하고 말하고 무당은 들어가 옷을 헛트리고 속치마 걸치마를 짹짹여비면서 지신집의 큰 애기로 꾸며가지고 나온다. 상교대는 지신집의 큰 애기로 분장한 무당을 보고 「아니 열두폭치마를 저렇게 감싸고 오나 어데서 자고 복데기가 그렇게 터덕터덕 붙었어」하고 물으면 「깡지깡에서 잤다」 거 대답한다. 「누구하고 잤나」하고 물으면 「이도령하고 잤지」 「저런 그 칠자가 그 칠자로구만 이불은 무슨 이불 덮고 잤어」 「이승이불 조승포대기 덮고 잤지 벼개는 이도령 팔 비고 잤지」하고 대답한다 상교대는 이말을 듣고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만대동 일대동 곳을 하는데 방아찝라고 오라구 했는데 방아찝겠다」하고 못마땅해한다. 무당(자신집에 큰애기)은 「시켜보지도 않고 되짜부터 넘습나」하고 대든다. 그러면 방아 좀 찝어보라고 말하면 무당은 「그러면 어디 한번 방아를 찝어 보는데」하고 방아찝는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방아타령을 부른다.

에 허리 방아야

이 방아가 뉘 방아나

에 허리 방아야

일대동에 명방아 복방이

에 허리 방아야

지신집의 큰애기는 명주고 복주는 방아타령은 하지 않고 「연지 닷되 분 닷되는 연지 닷되는 김도령이 대고 분 닷되는 이도령이 댄다 부뚝막은 못발라도 분단장이 제경이다. 분 닷되 연주 닷되 곤지 닷되 삼오심오가 열닷되가 제격이다. 조반 아침에 못자란다」 「수수밭 도지는 내가 다 물어 주께구 시월까지만 베지 말아 원두막 도지도 내가 다 물어주께 동지섯달까지만 허물지 말라 지신집에 큰애기 거동을 봐라 큰 애기 손목은 문고리냐 이사람도 잡고 저사람도 잡는다 앞집에 이도령 손만 까닭하면 오라 하고 뒤집 이도령 눈만 꿈벅하면 이리와」하고 이와 같이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므로 상교대는 「아이고 틀렸다」하고는 「이대동에 벌이 잘 하라고 찝는 방아를 그렇게 잡소리만 해서 되겠느냐 어서 가서 울오마니 보내라」고 말하면 지신큰애기는 「우리 울오마니 보내서 뭘하겠음나 서방질만하는 울오마니를」하고 말하면 상교대는 「그래도 안 되겠으니 울오마니 보내라」고 말하면 지신집큰애기는 「그럼 나 덩기덩강합소 가서 울오마니보냈게」하고 말하고 무당은 춤추면 들어 갔다가 울오마니로 분장하여 나오면서 하품을 하면서 지저귀를 하고 머리를 벽적벽적 끌그면서 나오면 상교대는 「아니 여태 어데서 잤길래 게으름을 피면서 오나」하고 물으면 무당(울오마니)은 「나 깡지깡에서 잤는데 시아버지가 삼태기 가지고 염을 풀어 오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대답하면 아니 해가 지금 「어늬때인데 머리 깎고 중나신데 여태 잤어」하고 물으면 울오마니는 「나는 지금 오밤중이라고 그렇게 뚫나」하고 말하면서 하품하고 기지개를 킨다. 상교대가 「무얼 덮고 잤나」하고 물으면 울오마니는 「이서 이불 덮고 조석 포대기를 깔고 잤지」하고 대답하며 온 몸을 굽는다. 상교대 할머니는 「아유 빨래로 안해입은거구먼

생전 저렇게 벽벽 굵으면서 오는것 보면」하고 말하면 울오마니는 「빨래는 무슨 빨래를 해 입으게」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아 이집에 굷하는데 가서 빨래해 입어야지 그냥 와서는 못 쓴다」고 하면 울오마니는 「그러나 그러면 빨래해 입고 와야겠습네」하고서 「만대동을 하니께 일대동에 여러 남자들 손에 풀구서 와야 겠다 걸직해서 잘 되고 배에다 이물 고물에다 풀고 푸쟁기 있는데다 다 풀구 와야겠다」고 말하며 옷을 풀고 빨래하는 시늉을 하고 오면은 상교대는 「아유 빨래해서 목에다 상큼터게 내패었구먼 아니 귀가 다 커보인다고 그거나 저거나 이가 말짱 그냥 똥구멍을 꺼꾸로 들고 었디어 있으니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아찡 겠느냐구 그러나 저러나 방아좀 찡어보자」하고 말하고 방아타령을 하는데

에허리 방아야
 재물에도 집는 줌
 금전에도 집는 줌
 에허리 방아야
 귀에다 대고 이물리 저물리 하는 줌
 입으로 요물 삼는 줌
 모지리 몽땅 다 잡아내서
 어허리 방아야
 손바닥에다 놓고 들여다보니 에
 궁뎡이가 넓다허니 보리 서마을 널 수 있나
 발은 육발이 한양 한번을 가느냐
 앞가슴에 먹통을 안았으니
 제 이름자 하나도 쓸줄 모른다.

이렇게 방아타령을 한다고 이타령을 하고나서 이껍데기를 떼다고 온 몸을 떨고 나서 「이 만하면 돼었습나」하고 물으면 상교대 할머니는 「아유 안됐다고 어서 빨리 가라」 「저거봐라 장고 앞에고 우두둑 떨어져 맨 이껍데기 무슨 명방아 목방아 풍지방아 식신방아냐 어서 가라」고 말하면 울오마니는 「여보소 그게 이 껍데기가 아냐 좀 껍데기지 재물에도 집는 줌 금전에도 집는 줌 병을 주는 줌 줌을 다 잡아 먹었지 내가 무슨 이를 잡아먹었습나」하고 대답한다 상교대는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돼겠으니 봉산에 올라버니 보내」하고 말하면 무당(울오마니)는 가는 시늉을 하고 가서 봉산에 올라버니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판사」하고 크게 부르면 상교대는 「아이고 판사는 무슨 판사야 판서하면 삼정승 육판서인 줄 알고 대답을 안하지」하고 말하면 이번에는 무당(울오마니) 「사장」하고 크게 소리지르면 「사장은 배만 땡땡허면 너도 사장 나도사장이야」하고 말하면 무당은 「그러면 무어라고 그래야 되느냐」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철리구봉창 만리구봉창 죽을 인간 살려주고 살 인간 명주고 복주고 하는 봉산에 올라버니 명방아 복방아 찡로오시요」하고 해야 대답을 하지 그렇게 하면 「대답을 허느냐 그럼 삼 세마디째 불러보자」 세번 부르면 무당은 봉산에 올라버니로 역을 바꾸어 「아 누구냐」하고 말하며 뒷통수를 탁탁치며 맹인시늉을 하면서 나와서 「누군데 그래」하고 상교대 앞이나서면 자기 똥이 하고 재담을 하고 병신난봉가를 부르고 나서 쌀을 담아놓은 광주리에 벼를 담아 놓고 뚝대를 들고 방아찡는 시늉을 하며 방아타령을 하는데 병방아 복방아를 찡는다.

방아를 찡고 나서 눈을 뜨고 상교대와 재담을 하고 나서 사공을 불러 등에 지어 실러 보내는데 상소임이나 다른 소임이 다른 역을 맡는다. 먼저 바디천을 받고 나서 배젓는 노래를 하며 배를 저어가는 시늉을 하고 예뵈양소리를 하며 사공의 등에 지우고 들어 가면서 마친

다.

13. 사냥굿

사냥굿은 재물로 쓰일 소를 얼르고 잡아서 받치는 의식이다. 만신이 흥치마에 쾌자를 걸치고 두루마기를 두루고 대감옷 장군의 옷을 등에 지고 머리 수건을 두루고 전립 쓰고 손에 대감기와 뚝대를 들고 왼손에 방울을 들고 재물로 잡을 소를 매어 논 군웅상이 있는 마당으로 나간다. 만신은 내림장단의 반주로 사방을 돌며 절하고 「에라 만세 에라 만세 해운다 년」 하고 만세받이 무가를 상교대와 매기고 받으며 춤을 잠깐 추고 무당은 상교대와 「이 재물이 인삼녹용을 구해야 되는데 상산막둥이가 사냥노릇을 해야 하니」 재담을 주거 받고 상산막둥이 찾는 시늉을 하고 상산막둥이가 나와서 만신과 재담을 하고 나서 소를 얼른 다음에 만신은 칼을 가지고 춤을 추며 얼르고 하는 동안에 소를 잡는다.

14. 성수걸이

성수걸이는 만신이 모시는 여러 일월성수신을 청하여 복을 비는 거리이므로 「제거리」라고도 한다. 무당이 흥치마에 옥치마를 겹쳐 있고 흑쾌자를 걸치고 흰띠를 띠고 머리에는 반갓을 쓰고 부채를 들고 장고 앞에 서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모여라오 모여라오 어진 성수를 모여라」고 하고 만세받이를 상교대와 매기고 받고 나서 노래를 띄우고 거상장단에 춤추고 빨리 올라 연풍을 돌고 나서 흘림공수 준다. 이어서 신장거리로 들어가는데 옥색도포와 반갓은 벗고 삼동달이를 입고 전립을 쓰고 신장칼을 들고 춤장단에 춤을 추고 나서 흘림공수 준다. 무당은 팔베를 입고 투구(말애기)를 쓰고 장군칼을 들고 춤장단에 춤추며 연풍 돌고 허리 제키고 나서 흘림공수를 주고 머리를 좌우로 휘둘러 「호국신장 호국대신 호국장군……」 하고 말하고 공수를 주고 중국말하는 시늉하고 삼현장단에 춤추고 주발에 쌀을 담아 들고 덕담장단에 덤담을 하고 쌀주발을 손에 들고 고사반을 넘긴다.

15. 타살굿

타살굿은 사냥굿에서 잡은 제숙을 들이는 감홍신과 장군신에게 들이는 의식이다. 사냥굿에서 잡은 제숙을 제상에 받쳐 놓고 소염들이 분양 재배를하고 무관하고 나서 만신이 흥치마에 초록쾌자를 걸치고 남관디를 입고 빗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들고 왼손에 방울 들고 굿상 앞에서 반절하고 산유장단에 수심가 토리로 「받으시오 받으시오 타살 감홍님 받으시오」 하고 만수받이 무가를 장단씩 매기고 받고 나서 방울을 놓고 부채를 들고 춤추다가 부채를 놓고 뚝대를 들고 춤추며 제숙을 둘러 본다. 무당은 삼지창과 칼을 들고 춤장단에 춤을 추고 고기를 삼지창에 꿰어 사슬을 받치고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받으시오 받으시오 만감홍님 받으시오」 하고 상교대와 만수받이 무가를 매기로 받고 나서 사룟을 지운다. 무당은 관디를 벗고 쾌자 바람으로 먼산장군을 논다. 장군칼을 들고 산유장단에 「띄우려오 띄우려오 춘추월간을 띄우려요」 하고 매기고 받고 나서 먼산장군을 청하고 장군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연풍 돌고 나서 흘림공수를 주고 여러 장군을 부르고 공수를 주고 칼산을 마치고 끝난다.

16. 대감놀이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에게 풍요를 비는 순서이다. 무당이 흥치마에 남쾌자 걸치고 동달이 입고 전립 쓰고 대감기를 들고 곳상 앞에서 사방에 반절하고 한바퀴 돌고나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장단씩 「노십시다 노십시다 대감님들 노십시다」 하고 만수받이를 상고대와 매기고 받으며 대감을 청하고 나서 노래를 띄우고 곳장단에 느리게 춤을 추며 여러가지 대감 몸짓을 하고 나서 흘림공수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상고대와 여러가지 재담을 하고 삼현장단에 춤추고 소염들에게 잔을 주고 대감이 노는 시늉을 하고 재담을 소염들과 하고 나서 산유장단으로 「드십시오 잡으시오 이술 한잔 잡으시오」 하고 복잔을 돌리고 쑥거리장단에 「에 허리 쑥거야」 하고 복을 몰아드리는 소리를 하고 나서 「대감님 잘 노시다」 하고 긴 노래를 띄우고 나서 자진만세장단에 「에라만세 에라 만세 잘 놀고가요」 하고 날만세무가를 상고대와 매기고 받는다.

17. 뱃기내림

곳당에 세운 여러 배의 기들을 각각 쌀을 담은 동고리쪽에 세워놓고 저마다 술잔을 놓고 배임자들이나 사공들이 붙잡고 축원을 받는 순서이다. 무당이 흥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동달이를 입고 호수갓을 쓰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각 배마다 선주이름을 부르고 선왕님에게 풍어와 배의 아전을 축원해 준다. 축원을 하고 기에 신이 내리면 재물들을 약간씩 나누어 가지고 기를 들고 각각 배에 내려가서 선원들끼리 배마다 고사를 지낸다. 무당의 복색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18. 조상굿

철몰이와 달리 대동굿에서는 따로 조상굿이 필요 없으나 오랫동안 대동굿의 소염으로 일하다가 죽은 노인이 있으면 이때에 영혼을 극락에 천도하는 뜻으로 조상굿을 한다. 흥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황관디를 입고 검은 수건을 쓰고 빗갓을 쓰고 철몰이굿에서 조상굿을 하는 것과 같이 산유장단에 만수받이로 조상을 청하기도 하고 긴만세장단에 염불장단을 매기도 받기도 하고 길베를 가르기도 하고 하여 조상굿을 제대로 하는 곳이나 만일 당에 모신 소염들이 없거나 그 마을에 죽은지 얼마 안되는 노인이 없을 때는 조상굿은 약하여 버린다.

19. 서낭목신굿

대동굿하는 마을에 못니을 모시고 있으면 목신굿을 하고 없으면 서낭굿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을에 서낭으로 모시는 나무가 따로 있거나 목신으로 모시는 나무가 있을 때에는 서낭목신굿을 따로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하는 장발굿에 서낭굿을 겸하게 된다. 무당은 흥치마를 입고 남쾌자를 걸치고 남관디를 걸치고 머리수건을 쓰고 빗갓을 쓰고 부채 방울을 들고 하얀 서낭기를 들고 곳상 앞에서 사방에 반절을 하고 산유장단에 만수받이로 「모십시다 보십시다 선왕님을 모십니다」 하고 무당은 만수받이를 하고 서낭을 내리고 곳장단에 춤을 추고 노래를 띄우고 닭과 시루를 삼지창에 꿰어 사슬을 세우고 축원하고 지

우고 나서 공수 주고 제관에게 잔을 주고 자진만세장단으로 날만세를 부르고 마친다.

20. 장발굿

큰 기에 매단 장발을 부들고 놀리어 축원하는 곳이다. 장발에는 칠성장발 장군장발 만감홍장발들 여러 장발이 있는데 무당이 무복을 입고 장발을 잡고 산유장단에 축원을 하고 메기고 받고 나서 장발을 붙잡고 춤춘 다음 양팔을 뒤로하여 장발을 감아 가면서 춤추고 1/3쯤 잡아 감아 뒤로 잡아당겨 끊어버린다. 이렇게 장발마다 축원하고 끊고 나서 춤을 춘다.

21. 영산 할아밤 할맘

풍어를 역사하는 신에게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배연신굿에서는 영산할아밤과 할멈의 연극적인 재담과 고기잡는 연극적인 동작이 행하여지나 대동굿에서는 간단하게 군무로써 구성하고 만다. 만신은 영산할맘으로 가면을 쓰고 무복을 입고 마을사람들 중에 영산할아밤 가면을 쓰고 무복을 입고 먼저 무당이 노래를 띄우고 나서 영산할아밤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춘다. 배연신에서는 여러가지 대담이 있으나 대동굿에서는 잘 놀고 간다고 말을 하고 만일 벌대동굿이 미리 되어 있으면 강변에 나가 띠배를 띄워 보낸다.

22. 벌대동굿

굿청에 모인 여러 잡신들을 먹여보내는 곳이다. 무당이 흥치마에 남쾌자를 입고 깃대 들고 자진만세장단으로 「놀러와요 놀러와요 대동수비 대동수비」 하고 모든 잡신들을 모아 놓고 재물들을 모두 털어서 내놓고 가진 잡신들의 모습을 흉내 내고 많이 먹고 물러가라고 축원을 한다.

23. 강변 용신굿

모든 액을 띠배에 띄워 바다에 널리 보내는 곳이다. 수수깡과 같이 짚으로 만든 띠배 위에 영산할아밤 영산할멈 탈을 실고 소머리 닭 떡도 실고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삼색기를 꽂고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배치기소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은 액을 실고 모두 물러가라고 축원한다.

Ⅲ. 배연신굿

어업(漁業)에 종사하는 선주택(船住宅)에서 정초(正初)에 풍어(豐漁)와 뱃길의 무사함을 비는 무의식(巫儀式)을 배연신굿이라 한다.

황해도(黃海道)에서는 어느 고장에서나 배연신굿을 정월(正月) 오일(五日)에서 십사일(十四日) 사이에 행한다고 한다. 보름이 지나면 출어(出漁)하기 위하여 배들이 떠나게 되는데 만일 사정이 있어서 배연신굿을 못하고 출어(出漁)했다가 뱃동사(선원(船員))가 발병(發病)하다가 투쟁기(그물, 닻 등 어구(漁具))가 상하거나 벌이(어량(漁量))가 좋지않거나 그 밖에

사고가 나면 배연신굿을 얇은 닻으로 보고 정월 수무사흘 조금 때에 하고 2월이나 3월에 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정월(正月)이 되면 뱃집(선주택(船住宅))부인(婦人)은 5일(日) 안에 낱 받는 이에게 찾아가 생기복덕(生起福德)을 가려 정월(정월(正月)) 5일(日) 에서 14일(日) 안에 택일(擇日) 한다.

택일(擇日) 하게 되면 뱃집 부인(婦人)은 뱃동사(선원(船員))부인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송침하고, 머리 떡 정성 드리고, 조라 잡고, 등신의 옷 장만하고, 기(旗)장만 하고 제물을 장만한다. 「송침한다」 함은 소나무 가지를 반발 넘게 꺾어다가 집 대문(大門)과 추녀 양(兩)편에 꽂아 부정을 막는 것이다. 머리 떡 정성 드린다 함은 큰일을 하기 위하여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근신함을 가리킨다. 「기(旗) 장만 한다」 함은 배연신굿의식에 쓰이는 오폭기, 만장한기, 임경업장군기, 호서낭기, 장앳발, 서리화와 같은 여러깃발 가운데 상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로 장만하는 것이다. 「조라 잡는다」 함은 목욕재계하고 정한 우물 가운데 세 우물 물을 차례로 떠다가 큰 항아리에 술을 빙는 것이다. 「등신에 옷」이라 함은 무의식(巫儀式)에 쓰이는 여러가지 신복(神服)을 가리키며 황해도(黃海道)에서는 무당뿐만 아니라 선주(船主)들도 대동굿 및 배연신굿에서 선원(船員)들이 입을 신복(神服)을 미리 장만하였다가 무의식(巫儀式)을 행할 때 마다 입히고 뱃장 안에 간직하여 둔다.

배연신굿은 신청울림 당산맛이 부정풀이, 초감응, 영정물림, 소당제석, 먼산장군, 대감놀이 영산할아밤 영산할맘, 쑥거주기, 다릿발용신(龍神)굿, 강변굿으로 구성된다.

1. 기 바르기

배연신하는 전날이 되면 고기잡이 나갔던 주인집 배가 들어온다. 온갖 깃발을 꽂고 사공들이 배치기풍장을 치며 「에밀양」이라 이르는 어요(漁謠)를 합창하며 포구(浦口)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기바른다」라고 한다.

말을에 돌아온 선원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뱃장안에 머물러 기거하며 바닷물에 목욕을 하는데 「머리 떡 정성을 드린다」고 이른다.

2. 굿상 차리기

굿하는 날 새벽이 되면 기주 내외와 선인 및 선인 부인들은 저마다 목욕 제계하고 새옷을 갈아입고 그 위에 「등신의 옷」이라 하여 장군복 대감복 등 신복(神服)들을 차려입는다. 선창에 매어둔 배의 「허리칸」에 말뚝을 네개 세우고 덮개를 덮는데 이것을 「낭창 친다」고 한다. 이 낭창 안에 굿상을 차린다. 낭창 안에 큰 상을 놓고 뱃집(주인집)에서 떡시루 조라술 그 밖에 여러 제물을 날아다가 굿상을 차린다.

배연신굿의 각 의식절차는 철물이굿과 대동굿의식과 같은 점이 많다. 철물이굿과 대동굿의 의식이 비교적 자세히 조사되었으므로 배연굿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1983),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全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십사책(第十四冊) 무의식편(巫儀式編)³⁾ 철물이굿과 중복되는 부분과 本文에 보고된 대동굿과 중복되는 부분은 약술하였다.

3) 上同

3. 신청올림

신청올림은 굿하기 전에 굿청에 잡귀를 쫓아 정화시키는 의식이다.

배연신굿에서 신청올림 의식 절차는 철물이굿의 의식절차와 같다.⁴⁾ 무당이 평복으로 주당 상앞에서 악기를 쳐 신청을 올린 다음 콩을 쥐어 바가지 등을 치며 각색주당을 부르며 쫓고 칼산을 던져 점을 치고 바친다.

4. 당산맞이

당산에 신을 맞이하여 굿청으로 모셔오는 절차이다. 풍어제에서 모시는 신은 뱃서낭이지만 해서지방에서는 임경업장군 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무당과 배주인 도사공 영자 화장 째이들이 무복을 갖추고 무악을 치며 신을 맞으러 가는데 「당 맞으러 간다」고 이른다. 무당은 흥치마에 남쾌자를 입고 붉은 관디를 걸치고 흥배를 달고 호수가 달린 빗갓(줄립)을 쓰고 손에 방울부채를 든다. 선주와 도사공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다.

등신에 옷을 입은 뱃동사(뱃사람)들이 장군기 봉죽 뱃기를 들고 앞에 가고 主巫가 따르고 선주와 도사공이 따르며 영자와 화장이 떡시루향로 잔대 종이 등 제물이 든 함지를 지고 따르며 이어서 째이와 무당들이 무악을 울리며 따르는데 호적수 장고째이 채금째이 광쇠째이 북째이 순으로 선다. 뒤에는 등신에 옷을 입은 뱃사람들과 그의 가족이 따른다. 째이들은 거상장단을 친다.

당에 당도하면 장군기를 당마당에 세우고 굿패는 당 밖에 둘러 선다 선주가 당쇠를 열고 들어가 위패에 옷을 입힌다. 임경업장군 위패에는 관디를 입히고 임장군 마누라 위패에는 빨강 치마를 입힌다. 위패앞에 제상을 차리고 재배하고 물러나면 무당이 흥관디를 입고 호수갓을 쓰고 방울과 부채를 가지고 들어 와서 산유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당을 맞는 무가를 부른다. 무당은 무가를 마치고 거상장단에 춤을 추고 나서 자유리듬으로 신의 말을 읊조리는 「홀림공수」를 준 다음 당 주변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장군기 깃대 중간에 매는데 이것을 「덧북」이라 한다. 이 덧북 위에 「길지」라 하는 종이를 두른다. 이것은 서낭신이 기에 강림하는 것을 뜻한다.

선주나 뱃사공이 장군기를 들고 깃목을 당 안에 들여 놓고 들어 서면 만신이 작은 상을 차려놓고 두 손으로 깃대를 붙잡고 축원하여 신이 내리도록 축원하고 신이 내려 기가 흔들리면 사공과 선주과 음복하고 기를 당 밖에 세워 놓는다.

무당과 뱃사람은 팽과리 징 장고 호적으로 배치기풍장을 치며 에밀양을 부른다.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뱃사람들이 뒷소리를 「에헤 에헤 에헤요」하고 받는데 에밀양은 장절형식으로 여러 절이 있으나 반드시 일절 삼절 또는 오절로 홀수가 되게 메기고 받는다.

에밀양은 서해안 뱃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랫말이 매우 많으나 대부분 임경업장군을 모시고 정성을 드려 풍성하게 고기를 잡고자 기원하는 내용이다.

뱃사람들은 장군기를 앞세우기 배치기 풍장을치며 선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기를 세우고 둘러 서서 다시 에밀양을 메기고 받는데 역시 홀수로 메기고 받는다. 에밀양을 마치고 다시 풍장을 치며 선창으로 내려와 굿하는집 배에 오르는데 먼저 장군기를 모시고 사공들만 배에 올라가서 장군기를 세워놓고 축원한다. 장군기에 앞에 조그만한 굿상을 차리고 영자가

4) 上同

「뱃북」이라 하여 배에서 쓰는 북을 「둥둥둥……」 이렇게 세차례 끊어서 치고 도사공과 뱃동사(어부)들이 일제히 절을 하고 나서 도사공이 「을축년 일년 열두달 간데 마다 많은 뱃들에 장원 주시고 우리 배옥선간(어부)들 몸소 곱게 해주고 별이 잘 하게 해주소서」 하고 말로 빌고 나서 도사공은 곳상에 있는 떡과 술을 들고 「고수례」 하고 소리치며 사방에 다 이것을 던진다.

5. 부정풀이

부정풀이는 곳청에 있는 잡귀 등 깨끗하지 못한 것을 모두 내보내어 곳청을 정하게 만드는 곳이다.

무당이 흥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그위에 남관디를 걸치고 붉은 호수갓을 쓰고 영자와 같이 곳상 앞에 선다. 무당은 바가지에 잿물을 담아들고 솔가지로 잿물을 찍어서 배의 사방에 뿌리며 소리치는데 이물에 가서는 「이물 부정이야」 하고 소리치고 고물에 가서는 「고물 부정이야」 하고 소리친다. 이렇게 배의 곳곳에 다니며 잿물을 뿌리고 소리치는데 이것을 가리켜 부정을 푼다고 한다. 「불산」에 음식과 부정물을 싣고 불을 붙인 다음 바다에 띄워 보내며 무당은 잠깐 장군님 신령님을 하감한다.

불산이라 하는것은 짚으로 한발쭝 되게 둥근테를 만들고 가운데에 십자로 살을 만들고 그위에 짚으로 산과 같이 원추형으로 만든 것이다.

6. 초부정 초감흥

초부정 초감흥은 부정풀이에 이어서 청한 여러 신들을 곳청에 좌정시키는 곳이다.

무당은 흥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흥관디를 입고 앞 뒤에 흥배를 달고 병주를 단 띠를 두루고 붉은 호수갓을 쓰고 손에 방울과 부채를 들고 사방에 반절을 하며 돌고 나서 상교대(장고쟁이) 앞에 서서 긴만수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두장단을 메기면 상교대와 조무들이 두장단을 그대로 받는데 처음에 「아왕 임금의 만세야」 하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기고 받는 것을 만세 받이라 한다.

<무당>아왕임금의 만세야

<잼이>아왕임금의 만세야

<무당>천세 만세야

<잼이>천세 만세야

무당은 만수받이 무가를 길게 부르고 나서 무가를 마치고 「초감흥 초부정 일구등신하고 노래를 띄우고 나서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머니가 오셨다……구조상님이 오시고 신조상님이 오시고……일구등신 가꾸신명이 다 오셔서 여기 좌정하신다」 하고 쇠를 띄우고 나서 거상장단으로 느릿 느릿 춤을 춘다. 무당은 춤을 차춤 차춤 조여서 곳장단으로 넘어가고 춤을 몰아간 다음 여러신을 놀리고 나서 양푼에 술을 담아서 국자를 띄워 들고 국자로 술을 떠서 양푼에 따르며 노래를 띄우고 나서 삼현장단에 춤을 추고 잔을 들고 뱃주인에게 주며 공수를 주고 나서 무당은 대신발을 들고서 배의 이물이며 고물이며 허리칸이며 그 밖에 배의 구석 구석을 돌며 두루고 나서 곳상 앞으로 와 서서 자진만세 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날만세 무가를 메기로 받으며 복잔을 내린다.

<무당> 에라 만세

<잽이> 예라 만세
 <무당> 잘 놀고 나시다
 <잽이> 잘 놀고 나시다
 <무당> 초부정에
 <잽이> 초부정에
 <무당> 초감응에
 <잽이> 초감응에
 <무당> 놀고나네
 <잽이> 놀고나네
 복잔을 내리고 나면 이 곳을 마친다.

7. 영정물림

굿당에 모인 장신들을 불러서 먹이고 물리는 절차이다. 무당이 홍치마를 두루고 흥관디를 두루고 붉은 호수갓을 쓰고 빈 상여 빈바가지를 놓고 굿상에서 음식들을 조금씩 떼어 바가지에 담아놓고 술잔을 하나 놓고 소지를 올리며 자진만세 장단에 육자백이토리로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 예라 영정
 <기대> 예라 영정
 <무당> 영정 마누라
 <기대> 영정 마누라
 <무당> 천하에도 영정
 <기대> 천하에도 영정
 <무당> 지하에도 영정
 <기대> 지하에도 영정

무당은 무가를 마치고 삼지창을 장고 숙바에 꽂고 바가지를 엮어놓은 뒤에 굿청을 맴돌고 나서 다시 바가지를 들어서 머리위에 놓고 굿장단에 춤을 추고 사공을 불러서 「모든 음식과 영정들 객신들 뜯 신들 잔뜩 이 배에 실었으니 이것을 받아 던지시요 그러면 오뎡이 앞 바다 열로 받아 뒤바다 열로 받아 물로 갑니다」 하고 말하고 사공에게 주어 바다로 던지도록 한다.

8. 소당제석

산신제속 용궁제석 서해용왕제석 등 바다를 관장하는 여러 제석신에게 축원하여 배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절차이다. 무당은 홍치마를 두루고 남쾌자를 걸치고 흰장삼을 입고 흰 꼬깔을 쓰고 붉은 가사를 어깨에 매고 목에 염주를 걸고 손에 갱정을 들고 굿상 앞에 선다. 배주인이나 사공을 불러 절을 시키고 나서 무당은 갱정을 치면서 사방에 반잘을 하며 한바퀴 돈 다음 상교대를 향하여 서서 갱정을 치며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수반이 무가를 메기로 받으며 제석신을 청하고 축원을 한다.

무당이 두장단을 「모시랴오 모시랴오 제석님을 모시랴오」 하고 메기며 상교대와 조무들이 「아하아 아하아 아하아 모시랴오」 하고 받는다.

무당이 무가를 마치고 갱정을 놓고 방울과 제금과 부채를 들고 쇠를 연 다 함은 신을 내리는것을 가리킨다. 무당은 신을 내리고 나서 붉은 타령형의 춤장단에 바라춤을 추고 나서 철철 치다가 땅에 던져 떨어트려 점을 치는데 모두 뒤집어지면 길조라 하며 하나라도 엮어지면 옳고 그름을 가려 다시 던져서 점을 치는 바 모두 뒤집어 질 때까지 친다.

무당은 굿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정경을 일거 부정을 친다. 이 때에 덕담장단을 당악장단 비슷하게 치며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하고 조선국에 해운단연 ○○해우년」 하고 경을 읽으며 부정을 풀고 굿상에 절을 하고 향로를 들었다 놓고 재배한 다음 거상장단에 느리게 춤을 추다가 벽구장단에 춤을 추고 춤을 조금씩 몰아간 다음 연풍을 들고 까치춤을 춘다.

무당은 춤을 마치고 서서 홀림공수를 주고 물동이에 올라서서 춤을 춘다. 이것을 「동이 사실단다」 고 한다. 무당은 춤을 추고 나서 「동해용왕 남해용왕 서해용왕 용왕애기 물애기 용태부인」 을 불러 논다. 또 배 허리칸에 있다는 물애기씨(소당 애기씨)의 노랑저고리 빨강치마 분 쪽집게 참빗 얼래빗 바늘 실 등을 모두 챙겨놓은 그릇을 들고 춤을 춘 다음 이 배의 화장을 불러 세워 놓고 「제가 이 배의 화장이나」 하고 물으면 화장이 그렇다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화장에게 「시집살이가 가소롭다」 고 말하고 여러가지 재담을 늘어놓 다음 「네가 뱃동사들의 빨래 서답의 시중드느라고 네손에 가시가 들고 힘이 들겠구나」 하고 치하를 하고 나서 「수고를 하였으니 곱게 꾸며 입쁘게 보여야 하겠다」 고 말하며 화장의 얼굴에 분단장을 시키고 다듬어 준다.

무당은 물동이 위에서 배주인 도사공 영자 뱃동사에게 두루 공수를 주고 복잔을 내려준다. 무당은 자진 만세장단에 육자백이토리로 날만세무가를 부른다.

9. 먼산장군

먼산장군거리는 장군신을 청하여 놀리고 축원하는 곳이다. 배연신곳에서 먼산장군은 철물 이곳에서 익은 타살에 해당하나 배연신곳에서는 돼지를 잡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잡지 않고 그 대신 조기를 놓고 굿을 한다. 무당이 흥치마를 두루고 초록 쾌자를 걸치고 남관디를 입고 붉은 호수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에 방울을 들고 굿상 앞에 서서 사방에 반절을 하고 나서 산수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만세반이 무가를 부른다. 무당은 먼산 장군님 사산장군님 열시왕 장군님들을 두루 청하여 축원하고 춤을 추다가 부채를 놓고 장군칼을 들고 굿장단에 춤을 추다가 연풍을 들고 나서 홀림공수를 주고 「황주 먼산○○장군님이여 먼산장군 본산장군 열시왕산 사산장군님이 아니냐 창 끝에 놀던 장군 칼 끝에 뛰던 장군」 하고 여러 장군을 부르고 나서 노래를 엮고 마친다.

10. 대감놀이

배와 주인집의 재물을 관장하는 여러 대감신에게 고기잡이의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무당은 흥치마를 두루고 흥철익을 입고 붉은 호수갓을 쓰고 울긋 불긋한 대감기를 들고 상교대 앞에서 반절을 하고 한바퀴 돌고 나서 상교대 앞에서서 산유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무가를 메기고 받는다. 무당이 「노십시다 노십시다 대감님들 노십시다」 하고 두장단을 메기면 상교대와 조무가 「아하에 아하에 노십시다」 하고 받는다. 무당은 이렇게 여러 대감을 청하고 축원을 하는데 뱃주인의 몸주대감 재물대감 부귀대감 물화대감 용궁대감 등 여러 대감을 청

하여 놓고 깃대를 들고 빠른 막장단으로 춤을 추어 한참을 놀고 나서 상교대와 여러가지 대답과 우스꽝스런 몸짓을 하고 삼현장단에 춤을 추고 뱃사람들에게 모두 잔을 내린다. 뱃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배치기를 한다.

11. 영산 할아밤 할맘

노인 부부이신 고기잡이는 작업을 연행하여 풍요를 제도하는 의식이다. 무당은 비옷을 입고 머리에 영산할맘 탈을 쓰는데 이것을 「광대를 붙힌다」라고 한다. 영산할맘역으로 꾸민 무당은 상교대 앞에 서서 산유장단으로 수심가토리로 무가를 불러 청배를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띄워 청배를 하고 나서 춤장단에 춤을 한참 춘다. 이때에 뱃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긴 활옷을 입고 얼굴에 탈을 써서 영산할아밤로 분장하고 옆에 섰다가 무당과 함께 춤을 춘다. 무당이 춤을 치고 서서 상교대에게 「여복소」하고 부르면 상교대는 「올씨다」하고 대답한다. 무당은 내가 옛날에 전시적에 난시적에 이러 저러 해서 우리할아밤을 잃어 버렸는데 소문에 듣기로 이집 저집 댕기며 배를 타고 먹고 살다가 지금은 사공으로 댕기다가 늙어서 영자쫓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댕 영자가 안 댕을까 하고 물으면 상교대는 「그러면 찾아보라」고 한다. 무당이 이리저리 찾는 시늉을 하면 상교대가 「막연하게 그렇게 찾으려면 댕 영자는 다 영감인데 어떻게 그렇게 찾느냐」고 말하고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하고 생긴 모습을 말하라고 한다. 무당은 할아밤의 생긴 모습을 이것 저것 주어대면 상교대는 이물로 가보라고 하고 무당은 이물로 영산 할아밤을 찾으러 나간다. 곁에 섰던 영산할아밤으로 분장한 뱃사람이 상교대에게 「영산할맘을 보았느냐」물으면 상교대는 영산할아밤과 재담을 주고 받다가 「그런 할맘이 할아밤 찾으러 이물로 갔다」고 하면 영산할아밤은 이물로 찾으러 나간다. 무당과 영산할아밤 역을 맡은 뱃사람은 이물로 고물로 허리칸으로 서로 엇갈려 왔다 갔다 하며 찾는 시늉을 하고 서로 부르고 뱃사람들에게 묻고 재담을 한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마주치면 붙잡고 우는 시늉을 하며 서로 원정을 하다가 난봉가를 부른다. 노래를 그치고 영산할아밤이 무당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무당은 아이들 내력을 이야기하고 「막둥이는 좋은 주인을 만나 이 배의 영자가 되었다고 한다」 영산할아밤은 「아까 그 영자가 우리 막둥인가」하고 물으면 무당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영자를 불러다가 서로 붙들고 여러가지 재담을 한다. 영자는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물을 바다에 넣었다가 올린 다음 그물에 잡힌 고기를 푸는 시늉을 하는데 이 때에 영자는 영산할아밤 영산할맘 뱃사람들과 여러가지 재담을 하며 가래로 고기푸는 시늉을 하며 「어 낭청 가래야」하고 술비소리(가래질 소리)를 부른다. 도드리장단에 수심가토리로 술비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한참 동안 고기 푸는 시늉을 하고 나서 무당과 뱃사람들은 배치기풍장을 치며 애밀양을 메기고 받는다. 한동안 소리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나서 긴 무명을 느리우고 뱃사람들에게 무명의 양 끝을 잡아 당기게 하고 무명 위에 떡을 담고 「어허리 쏙거야」하고 노래를 메기고 받는다. 이 노래는 긴만세장단과 같은 「쏙거 주는 장단」이라고도 한다. 선율은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다. 무당이 두 장단을 메기면 뱃사람들과 조무가 「어허리 쏙거야」하고 두장단에 받는다. 무명에 떡을 담는 것을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무당이 뱃주인과 뱃사람들에게 옷을 벌려 떡을 받아가도록 부여준다. 이떡은 복떡이라 하여 이웃에 있는 배에서도 얻어가려고 서로 소리치며 재담을 하면 떡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12. 다리발 용신굿

이것은 굿판에 모인 잡귀들을 먹여서 보내는 거리로 뒷전거리에 해당한다. 배의 갑판 가에다가 다리발을 걸치고 아래로 늘어 놓은 다음 무당이 흥치마에 남괘자를 걸치고 베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짚꾸러미를 이고 서서 상고대 앞에서 자진만세장단에 수심가토리로 무가를 불러 굿판에 모여든 모든 잡귀들에게 잘 먹고 물러가라고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뱃사람들이 「다릿발 다영산」 「배의 영산」이라 하여 여러 잡귀 시늉을 하며 갑판가에 걸쳐 놓았던 다리발 위로 짐을 이거나 지고가는 시늉을 하며 서로 오르 내리다가 서로 부딪치고 서로 떠들며 재담하고 서로 엮어서 이리 올려놓고 저리 내려놓고 하다가 모두 올라갔다 오며 떠들고 춤을 춘다.

13. 강변굿

수수깁과 짚으로 배모양으로 만든 띠 배에 재물을 싣고 또 바가지로 얼굴을 그려놓은 허수아비를 실어 놓는다. 이 허수아비를 산영산이라한다. 산영산과 재물을 실은 띠배를 바다에 띄워보내는데 이것은 액을 실어 보내는 것을 뜻한다.

무당은 자진만세장단으로 축원을 하고 춤추고 마치는데 뱃사람 가족 가운데 수사자가 있으면 집에서 개별적으로 매을 지어 갯가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한데 모아놓고 죽은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축원해준다.